

Oct. 2023

(주)제넥신 주주 레터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제넥신 대표이사 홍성준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시작된 분쟁으로 인해 나날이 불안해지고 있는 국제정세와 더불어 지난 1년 6개월간 제넥신의 CEO로 근무하던 닐 워마 대표이사의 사임 등으로 오랫동안 제넥신을 지지해 주신 주주님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제넥신의 모든 임직원들은 많은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글로벌 기업에 견줄 만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확립했으며,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약재 및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은 오래도록 염원하고 계획했던 신약개발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신약 R&D분야에서 오랜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결실을 보여드릴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K-바이오 기업 중에 자체 기술력으로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이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된 사례는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1세대 K-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창업주의 바람이기도 했으며 모든 K-바이오 벤처 기업의 숙원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넥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많은 주주 여러분께 보답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 제품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 파이프라인을 통한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함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닐 워마 대표이사와 저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에 맞는 경영체계 확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한 제넥신은 R&D 역량개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팀을 새롭게 확대 개편해 후보물질 발굴 및 신기술 도입 역량을 강화했으며 라이선스-인,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bioPROTA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피디바이오와 공동 기술 개발 협약을 맺고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Oct. 2023

(주)제넥신 주주 레터

우리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으로 임상 범위를 확장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제넥신은 현재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비 투석 만성신부전환자 대상 지속형 빈혈 치료제 GX-E4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전 임직원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GX-E4가 허가를 받게 되면 제넥신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중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됩니다. 허가 이후, 한국과 호주 및 아시아 5개국에서 품목허가를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석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대상으로 유럽 및 아시아 11개국 임상시험계획 신청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형 성장호르몬인 GX-H9은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 중이며 2024년초에 중국에서 BLA신청을 완료하고 1~2년내에 중국에서 우선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국 파트너사 I-Mab Biopharma 와의 협력관계도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DNA 치료백신인 GX-188E과 GX-I7의 두경부암 연구자주도 임상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두경부암 치료제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오이뮤텍과 공동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GX-I7(NT-I7)은 2022년 12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미국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ARS(Acute Radiation Syndrome)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류와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미(美) 국방부와 ARS치료제 공급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임상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등 양사는 빠른 시일내로 상업화에 성공하기 위해 GX-I7(NT-I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개발현황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아웃 및 공동개발 파트너링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넥신은 이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넥신의 인재들과 함께 제넥신의 오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분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를 영입하고 함께 제넥신의 R&D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혁신 신약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지금껏 K-바이오의 대표주자로서 제넥신을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들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넥신 대표이사 홍성준 배상